

新羅半跏思惟像의 新例

黃 壽 永

一、

國內에 國寶로 指定된 半跏思惟像 二軀가 傳來하고 있어 國立博物館像(국보 八三호) 또는 舊德壽宮美術館像(국보 七八호)으로 자기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兩像의 傳來場所나 그 經傳 등에 대한 關係 자료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며 또 이들 兩像에 대한 기왕의 研究 또한 活潑하게 進行되어 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國寶 兩像에 대한 우리의 注目は 그들이 모두 우리 三國時代彫刻史의 으뜸이며 동시에 東洋美術史에서 重要な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와 같은 半跏思惟樣式像은 그 淵源이 印度나 中國에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三國時代에 우리 韓半島에 이르러 大成되어 마침내 最優最善의 傑作을 오늘에 남겼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石窟寺院이 같은 經路를 밟아서 마침내 그 終點인 우리나라 新羅吐舍山에 이르러 珠玉같은 石窟寺院을 일으켜 그 안에 東洋第一의 石造如來坐像을 彫成함에 이르렀던 사실과도 對比할만하다. 그리하여 金銅像에 있어서 또 石像에 있어서 각기 이들이 우리나라 三國과 統一新羅의 두時代를 代表함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러 우리 古代彫刻史의 研究는 자연히 이같은 金石像에 重點을 두고 그들을 냥을 을 수 있었던 지난날의 높은 彫刻傳統과 그 깊은 內實을 애써 더듬고져 하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높은 比重을 감안하여 이 半跏思惟樣式像의 美術史的 研究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던 當代의 佛敎信仰에서는 동시에

重大한 歷史的 契機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當時佛敎信仰의 趨勢이었던 彌勒信仰에서 理解될 것이나 그것이 우리 三國에 各別 受容되는 過程에서 殊異性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古新羅에도 달하여서는 三國統一의 大業完遂와 相應하여서 그 信仰과 佛像造形에 깊이와 活力을 이룰 수가 있었다. 사실상 韓半島에 있어서 이 半跏思惟樣式像이 三國을 통하여 크게 流行하던 時代야말로 바로 우리 上古史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最重要한 時期와 正確하게 一致하고 있기도 하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같은 半跏思惟樣式像은 六、七世紀 특히 六〇〇年을 경계로 삼아 그前後 약 一百年에 걸쳐서 流行하였는바 이때는 바로 三國統一의 陣痛期에 該當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三國統一의 大業에서 最後의 勝利를 거둔 古新羅에 있어서의 彌勒信仰의 盛行특히 이 信仰과 신라의 花郎制度와의 깊은 不可分의 關係에서 그 당시의 國仙이 彌勒仙花이며 동시에 神仙①으로 생각되었던 史實을 크게 注目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慶北 月城 西面 松仙里 斷石山 神仙寺 石窟寺院의 造像銘記②에서도 判讀될 수 있었던 「高三丈의 彌勒石像과 菩薩二區」등 彌勒三尊의 奉安事實과 이 石窟彫像中에서 찾을 수 있었던 新羅最古의 遺像으로서 오늘날도 그 原位置를 지키는 磨崖半跏思惟像에서 이 神仙寺石窟③이 곧 「彌勒窟④」이란 사실은 더욱 注目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石窟과 그 彫像은 또 三國統一의 英勳인 金庾信將軍의 三國統一의 祈禱處였던 「中岳石岬」(三國史記金庾信傳)과도 관련되어 앞으로 그 究明이 더욱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일찌기 이 神仙寺石窟과 그를 中心으로 삼은 附近一帶의 적지않은 金將軍關係遺蹟의 調査에서 이 石窟이 곧 傳稱과 같이 「金將軍이 工夫하시던 房」 곧 「中岳石岬」로 比定한 바 있었던 사실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變動이 없다⑤

二、

그러므로 解放後 우리의 이 半跏思惟樣式像에 대한 研究가 주로 初頭

에서 들은 國寶像 兩軀를 대상으로 삼아왔다 하더라도 그 解明을 期한 오랜 歲月에 걸친 注目은 그사이 적지 않은 成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기왕에 알려진 遺像 이외에 다음과 같은 新例를 列擧할 수가 있을 것이다.

(A) 百濟領域(忠清道)

瑞山磨崖像⑥(國寶八四號)

扶餘出土蠟石像⑦(下半, 扶餘博物館所藏)

淸州出土蠟石像⑧(下半, 檀國大博物館所藏)

(B) 高句麗

平壤市平川里出土金銅像⑨(國寶一一九號)

(C) 古新羅(慶尙道)

月城斷石山神仙寺磨崖像⑩(國寶一九九)

慶北奉化郡物野面發見石像⑪(慶北大博物館所藏)

忠南燕岐碑岩寺碑像⑫(寶物 三三八號 國立博物館所藏)

忠南燕岐蓮花寺碑像⑬(寶物六四九號蓮花寺所藏)

傳榮州出土青銅小像⑭(尹章燮氏所藏)

대략 以上과 같은 新像을 통하여 이半思惟樣式像에 대한 比較考察이 可能하리라고 期待하여 왔으며 한결음 나아가 그 系譜와 아울러 信仰內實을 더듬고저하여 왔다. 그리하여 三國中에서도 古新羅가 他二國을 壓倒하여 이半跏思惟像의 造成이 金石土의 材料로써 크게 流行한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一九六九年에 새로 발견된 上記한 奉化石像은 東洋의 佛敎諸國에서 다시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巨像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와 같은 新例의 收拾과 그 考察을 통하여 마침내 一九七七年에 발표한 「韓國塔像의 研究」(半跏像「考古美術」一三四호)에서 이들 國寶像 兩軀의 歸屬王國을 논의하여 이들이 모두 古新羅의 作品으로 推定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金銅兩像중 그傳來에 대하여 兩說(慶州五陵附近寺址出土와 忠清道僻村出來)을 전하던 舊德壽宮美術館像에 대하여서는 慶州說을

따르기로 하였었다. 이와 같이 이 德美像을 古新羅의 作品으로 추정하려는 까닭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遺例의 조사를 그理由로 들 수가 있었다

- (1) 月城神仙寺石窟像의 새로운 調査
- (2) 慶北奉化物野像과의 比較
- (3) 日本京都廣隆寺木像⑮의 新考察——특히 그 新羅傳來說에 대하여

三、

이와 같은 韓國半跏思惟樣式像에 대한 研究의 現段階에서 昨今兩년에 忠北中原과 慶南梁山의 두곳에서 새로發見된 磨崖石像과 青銅像 各一例는 모두 重要な 考察의 對象이 되기도 하였다. 前者는 一九六八年十月에 檀國大學校博物館長 鄭永鎬敎授에 의하여 새로 調査되었으며 後者는 今年 五月二十五日 慶南 梁山郡 勿禁面 魚谷里七二推定 古寺址에서 徐相根씨에 의하여 家屋新築中 우연하게 出土申告되어 그후 文化財管理局 埋藏物評價會를 거쳐서 國立博物館에 陳列됨에 이르렀다. 이하 兩件을 간단하게 소개하려니와 前者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調査者의 자세한 發表를 期待하고자 한다.

(1) 中原磨崖像: 中原郡可金面鳳凰里에 溪水를 앞에 두고 正三角形의 낮은 산이 솟아있어 속칭 햇골산이라고 부른다. 그 山麓에 南向하여 一群의 磨崖佛菩薩群이 있고 다시 이곳에서 西쪽으로 近距離에 巨大한 如來坐像 一軀가 東南向하고 있다. 이들 두곳에 따로 造成된 石佛들은 일찌기 學界의 注目된 바 없었던바 近年에 이르러 忠州地區에 대한 古蹟調査에서 새로 着眼된 것이다. 그런데 이 地點은 同面塔埋理의 七層石塔(中央塔) 또는 今年에 새로 발견되어 學界의 非常한 注目을 모은바 있었던 高句麗碑石의 所在地點과 隣接하고 있으며 동시에 漢江流域이 바로 가까이 眺望되는 場所이기도 하다. 또 이 地點은 日帝初 建興五年銘 金銅光背 高句麗作品으로 새로 추정된)가 出土된 바 있었던 中原郡老隱面과도 매우 近接하고 있다. 이같은 高句麗 및 新羅의 古代遺蹟이 傳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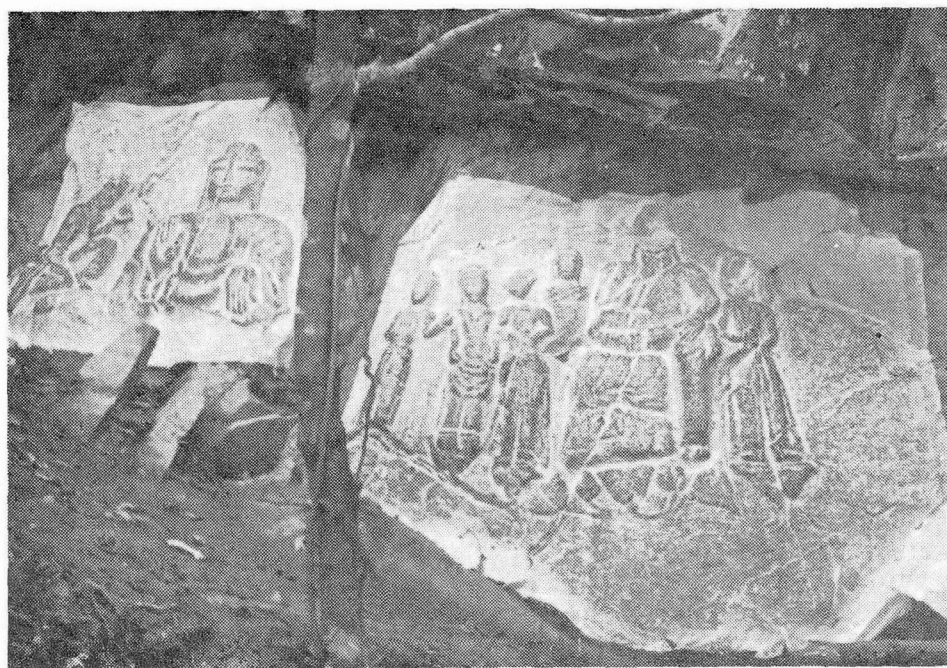


圖 1. 中原鳳凰里 佛菩薩群



圖 2. 中原鳳凰里 磨崖半跏思惟像

하는 이 中原 可金面 一圓은 우리 三國역사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땅이
 었을 뿐 아니라 佛教等 古代文物의 傳來에 있어서 注目할만하다. 이곳
 東方佛像群은 南向한 그다지 크지 못한 岩面에 東으로부터 西를 향하여
 菩薩立像一軀가 있고 다음에 보다 큰 규모로 半跏思惟像(頭部는 破損)
 을 主尊으로 삼아서 正面하였으며 이어서 菩薩立像計四軀가 있으며 다
 시 이들에서 約1m 떨어져 큰 如來坐像이 있는데 이 坐像을 向하여 다
 시 菩薩一軀가 그 옆에 꿇어앉아서 供養하는 아름다운 姿勢를 보이고 있
 다. 모두 頭部를 除外하고는 淺刻되었는데 半跏像은 蓮花座에 앉았으며
 半跏座하고 右手指를 右頰에 接近시켜 通式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蓮
 座에서는 蓮莖이 派出하여서 다른 菩薩立像의 蓮座에 이르고 있기도 하
 다. 上半裸身이며 榻座에 衣紋이 새겨진 樣式들을 볼 수가 있다. 다만
 頭部가 일찌기 掠奪者에 의하여 削去되었기에 오늘날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 東方의 佛菩薩群은 모두 彌勒의 如來와 菩薩의 兩像과
 그 脇侍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서기 六〇〇年경에
 조성된 古新羅의 作品으로 추정되나 그에 소속되었던 伽藍의 자취는 아
 직도 밝힐 수가 없다.

(2) 梁山像: 慶南에서 發見된 確實한 半跏像으로서는 初有의 遺例인
 卍家屋工事中 地下 약 1m 깊이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할 뿐 古寺址의 규
 모는 매우 작으며 瓦片 이외의 遺物發見은 없다고 한다.

一九七九年 十二月 十五日 釜山市立博物館長 朴敬源氏와의 現地調査
 에 따르면 發見場所(현재는 工團住宅으로 변함)는 梁山邑앞을 흘러 洛
 東江에 드는 梁山川의 支流가 깊이 內陸에 드는 川邊가까히 낮은 산을
 배경삼아 이룩된 작은 佛寺로서 南向하였던 듯 하다. 따라서 이곳서는
 西南으로 梁山과 멀리 洛東江을 가르킬 수가 있다. 이곳은 아마도 慶州
 에서 洛東江에 이르는 最短距離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佛像은 이地點 山麓에 집하여 古寺址로 추정되는 곳에서 出土되었는
 바 發見者談에 의하면 長大石이 깔려있어 建物基壇으로 추정되었다고도

한다. 동시에 이 新像은 높이 二七·五cm로서 해방후 새로 발견된 이樣
 式의 金銅像中의 最大의 作品인바 出土地가 알려진 사실 또한 이 作品
 의 價値를 한층 높여주기도 하였다. 이 新像은 현재 全面에 靑緞가 덮
 여 있으나 損傷이 거의 없이 收拾된 것은 또한 매우 多幸이었다. 下端
 에는 蓮花座가 따로 마련되었던지 榻座에서는 蓮花紋을 볼 수가 없다.
 먼저 이 像에서 注目되는 것은 過去에 그 例가 드물었던 三面花冠을 썼
 는데 이같은 三面花冠은 그에 앞서는 高冠樣式에 比하여 年代가 내려오
 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같은 三面花冠의 例로서는 慶州 南山三
 花嶺彌勒三尊의 兩菩薩位像이나 金銅像에 있어서는 傳皇龍寺址出土의
 半跏思惟像(頭部)과도 同一하다. 그리고 臺座의 圓形임과 그 衣紋등은
 奉化石像이나 舊德壽宮美術館像과 比較할만하다. 上半裸身이며 앞으로
 약간 수그린 頭部 그리고 半跏坐勢나 右手의 思惟形과 衣紋 및 左右의
 紕帶 양식등에서 上記新羅金石像과의 親緣을 짐작케 한다.

以上을 다시 要約하면 다음과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사이 三國의 遺例가 檢出되어 왔으며 특히 古新羅의 作品이 계
 속 收拾되므로써 유독 古新羅의 比重이 他二國에 비하여 크게 增大한
 사실을 指摘할 수가 있겠다. 이같은 古新羅의 比重은 동시에 그 信仰의
 背景 또는 三國統一을 完遂하였던 古新羅의 時代의 背景과도 相應된 것으
 로 보고져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新像이 收拾된 中原·梁山의 두地區
 는 일찌기 韓國半跏樣式像과 無緣의 땅이었던만큼 한층의 주목을 받았
 으며 특히 그地點이 漢江이나 洛東江같은 河川流域에 占定한 初期寺院
 이란 사실에서 新羅半跏像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그런데
 이같은 古代河川流域의 寺蹟에 대한 着眼은 이미 기왕에 있어서 서울
 三陽洞 金銅菩薩立像(국보 一七二七호)이나 京畿道 楊平江上面出土 金銅
 如來立像(국보 一八六호) 또는 慶北善山出土 金銅佛菩薩立像(국보 一八
 二·一八四호)의 경우에서도 거듭 이루어진 바 있었다. (一九七九年 十二
 月 一日)



圖 4. 梁山像(後面)



圖 3. 梁山出土 青銅半跏思惟像(正面)



圖 6. 梁山像(像左側)



圖 5. 梁山像(上半身)



圖 7. 梁山出土 青銅半跏思惟像實則圖

〈註〉

- ① 三國遺事 卷三、彌勒仙花條에 「至今國人稱神仙曰彌勒仙花凡有媒係於人者曰未戶皆慈氏之遺風也」라 보인다.
- ② 黃壽永編·韓國金石遺文(一) 志社 一九七六年刊) 造像銘一〇六新羅斷石山神仙寺(上人巖)造像銘記.
- ③ 黃壽永·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韓國佛像의 研究) 三和出版社一九七三年刊)
- ④ 이 斷石山神仙寺石窟이 그 奉安主尊에 따라서 彌勒窟이라 呼稱됨에 대하여 吐含山石窟庵은 또한 그 主尊坐像이 阿彌陀如來임에 따라서 「彌陀窟」이라고 불려왔다(「吐含山石窟上棟文」參照)
- ⑤ 이와 관련하여 金庚信將軍이 「中岳石岬에서 만나 祕方을 얻은 難勝老人이 바로 彌勒住處인 兜率天의 同名의 菩薩임이 밝혀진 사실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金英泰 교수 論文 參照)
- ⑥ 拙稿·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韓國佛像의 研究) 一九七三年 三和出版社刊)
- ⑦ 拙稿·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韓國佛像의 研究) 一九七三年 三和出版社刊)
金永培·扶餘出土半跏思惟石像(考古美術九卷 七號 一九六八年 七月)
- ⑧ 拙稿·傳清州出土 石造半跏思惟像(考古美術) 一一一·一二二號 一九七四年 六月)
- ⑨ 拙稿·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二座(韓國佛像의 研究) 一九七三年 三和出版社刊)
- ⑩ 上註③과 同一
- ⑪ 拙稿·新羅半跏思惟石像(上揭書③奉化北枝里石像)
- ⑫ 拙稿·忠南燕岐石像研究(上揭書③碑岩寺石像三個)
- ⑬ 上註⑩과 同一(⑤蓮花寺石像二個)
- ⑭ 拙稿·金銅半跏思惟小像의 新例(考古美術) 一一八호 一九七三年 六月)
- ⑮ 毛利久·廣隆寺寶冠彌勒像과 新羅樣式의 流入(洪淳昶博士還曆紀念史學論叢) 一九七七年)

⑯ 서울 金東鉉씨 소장 金銅小像이 「近年에 慶南某寺의 石塔」에서 發見되었다고 전하고 있다(註⑭參照)

(東國大學校博物館長)